

한 학기 한 권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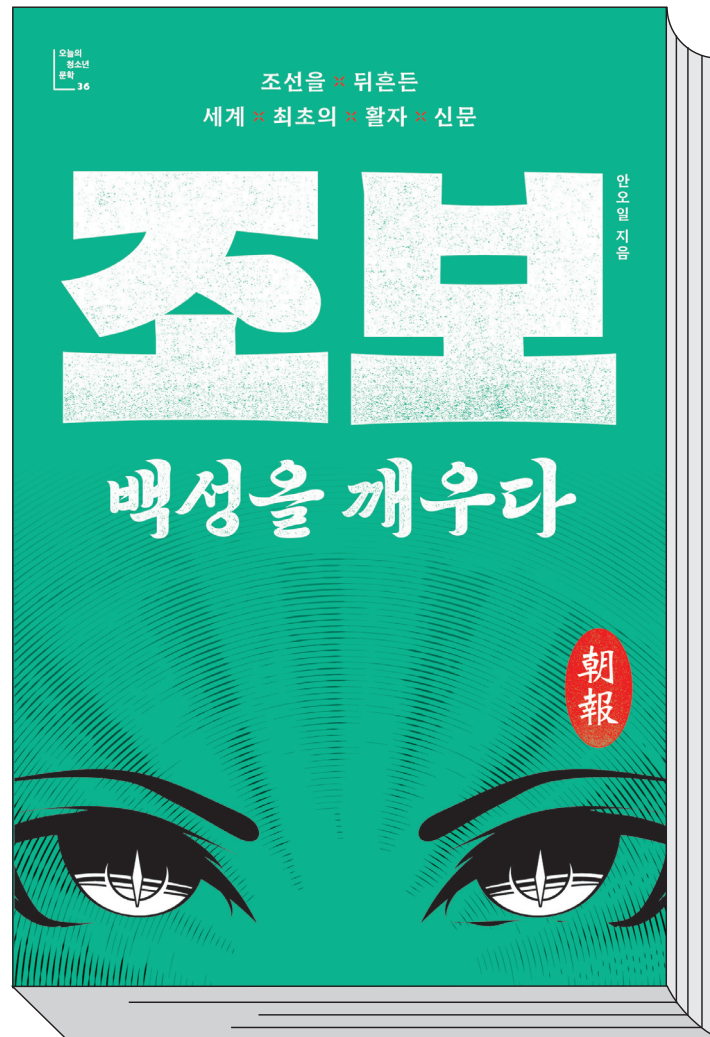
조보, 백성을 깨우다

작성

이진미 선생님(계산중학교 교사)

오늘의 청소년 문학 36

안오일 장편소설



주제어

#역사소설 #조보 #언론 #민간인쇄조보 #최초의_활자_신문

분류

문학> 한국문학> 청소년소설

※이 지도안은 다른출판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darun_pub)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조보, 백성을 깨우다》
읽기 전 활동: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학번:	이름:

1. 다음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어 떠들썩한 2학년 2반 교실에 반장이 허겁지겁 뛰어 들어왔다.
 “3학년이 체험 학습 가서 오늘 급식은 2학년부터 먹는데. 1반 애들 벌써 급식실로 다 갔어. 우리도 빨리 가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급식실로 몰려갔다. 하지만 4교시 수학 시간부터 내리 단잠에 빠져 있던 둘리는 친구들이 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둘리야, 일어나! 밥 먹으러 가자!”
 짹짹 희동이아가 나가면서 큰 소리로 둘리를 불렀지만 둘리의 귀에는 그마저 자장가로 들릴 뿐이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둘리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텅 빈 교실을 둘러보았다. 꼬르륵, 둘리의 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다.

(1) 윗글에서 반장이 전한 소식을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둘리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뉴스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2) 최근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또, 만약 뉴스가 없다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사 Tip 학생들이 스스로 뉴스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주세요.

2.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다양한 매체에 대해 알아보시다.

교사 Tip 최근 화제가 된 사건이나 사고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뉴스를 전하는 다양한 매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주세요.

(1) 우리가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매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다음 시간부터 네 시간에 걸쳐 함께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독서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수업 시간 전에 조금씩 미리 읽어 오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독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학급의 ‘책 읽기 규칙’을 함께 정해 봅시다.

교사 Tip 책 읽기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2-3가지 정도의 규칙을 공유하면 좋습니다. 책 읽기 수업을 하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규칙은 학급별로 다르더라도 교사가 일괄적으로 정해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스로 정한 규칙은 더 잘 지킬 거예요.

규칙의 예) 읽다가 잠이 오면 스스로 제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읽고 잠이 깨면 다시 스스로 자리에 앉는다.

2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조보, 백성을 깨우다》
읽기 활동: 오늘 읽은 내용 정리하기	
학번:	이름: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부분	쪽 ~ 쪽
어휘 학습 (뜻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의미를 검색해 기록하기)			
나의 질문 (읽으면서 궁금해진 것 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인물의 대사			
새로 등장한 인물 소개			

교사 Tip 독서 일지를 옆에 두고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기록하도록 해 주세요.

3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조보, 백성을 깨우다》
읽기 활동: 오늘 읽은 내용 정리하기	
학번:	이름: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부분	쪽 ~ 쪽
어휘 학습 (뜻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의미를 검색해 기록하기)					
나의 질문 (읽으면서 궁금해진 것 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인물의 대사					
새로 등장한 인물 소개					

4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조보, 백성을 깨우다》
읽기 활동: 오늘 읽은 내용 정리하기	
학번:	이름: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부분	쪽 ~ 쪽
어휘 학습 (뜻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의미를 검색해 기록하기)			
나의 질문 (읽으면서 궁금해진 것 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인물의 대사			
새로 등장한 인물 소개			

5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조보, 백성을 깨우다》
읽기 활동: 오늘 읽은 내용 정리하기	
학번:	이름: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부분	쪽 ~ 쪽
어휘 학습 (뜻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의미를 검색해 기록하기)					
나의 질문 (읽으면서 궁금해진 것 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인물의 대사					
새로 등장한 인물 소개					

6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조보, 백성을 깨우다》
읽기 후 활동: 질문에 답하며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학번:	이름:

교사 Tip 제시된 질문에 답을 씁니다. 필요한 경우 책을 다시 넘겨 가며 답을 찾도록 합니다. 아래 질문 가운데 필요한 것만 선택하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쓰세요.

1. 결의 할아버지 이상선이 관아의 아전을 그만두고 나온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와 같은 행동으로 볼 때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 것 같은가요?

2. 덕배 어머니는 졸지에 빌리지도 않은 쌀 열 섬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교사 Tip 낯선 사내들이 덕배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3. 결의 외숙부 김완용은 왜 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4. 정치 권력가들은 왜 조보에 실린 기사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5. 결의 아버지가 사또에 대한 상소를 조보에 신지 말라는 외숙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6. 오라버니와 남편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결의 어머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결의 어머니라면 누구의 편을 들어 줄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병마절도사가 호화로운 수레를 타고 다닌다는 기사를 보고 결이는 ‘조보가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사 Tip 조보의 필요성에 주목해서 답을 찾도록 지도해 주세요.

8. 결이가 조보를 흘림체가 아니라 반듯한 정자체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9. 백성들은 나라에 대한 요구 사항이나 조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이에 낙서처럼 적어 길에 뿌렸어요. 요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뉴스를 보고 댓글을 쓰는 것과 묘하게 비슷하지요. 백성들이 임금에게 민심을 전달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교사 Tip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상상하도록 독려해 주세요. 학생들이 발표한 방법이 당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았다면 어쩌서 그랬는지 짚어 보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제도적 또는 기술적 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요.

10. 덕배는 국화의 어떤 점을 좋아한다고 했나요?

11. 결의 아버지 이필선이 김 판서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조보 필사본에 신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2.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3. 여러분이 만약 이필선이라면 진실을 지키는 쪽과 아버지를 지키는 쪽 중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4. 이필선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기별청에 사직서를 냈지요. 여러분은 이필선의 행동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5. 결의 할아버지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아주 희미한 빛 하나라도 나타나면 물러나게 돼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결은 짙은 어둠처럼 막막한 일도 아주 작은 희망만 보인다면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지요.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나요?

교사 Tip 각자의 경험을 떠올려 보도록 이끌어 주세요.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지만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 성공한 적이 있었나요? 또는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보거나 들은 일이 있나요?

16. 김 판서는 권력을 이용해 기별청을 좌지우지하며 조보를 조작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17. 덕배는 “꽃은 피어야 하면 피는 거지. 나중에 된서리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사 Tip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야. 나중 일을 앞서 걱정하느라 지금 할 일을 못 하면 안 되지.” VS “나중에 생길 일을 잘 생각해 보고 미리 준비부터 해야지. 덮어놓고 덜컥 시작부터 하면 되겠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떤 쪽을 지지하는지 사례와 근거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작은 토론회를 열어 보세요.

18. 나라의 기밀문서를 빼돌렸다는 죄목으로 아버지와 안승우가 포도청에 잡혀가고 준비하던 속보의 원본까지 빼앗겼을 때, 결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9. 결이는 잡혀간 아버지와 안승우를 대신해서 속보를 인쇄하고 배포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결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 소설에서는 결이가 속보를 만들어 진실을 알림으로써 아버지도 구하고 민간 조보 발간을 공식적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임금의 명령으로 백여 일만에 민간 조보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교사 Tip 책의 말미 ‘알아 두기’에 의정부 관리들이 선조에게 보고하지 않고 허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임금이 우려한 민간 조보 발행의 폐해로는 어떤 점들이 있었을지 학생들이 스스로 추측해 보도록 이끌어 주세요.

7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조보, 백성을 깨우다》
읽기 후 활동: 스스로 질문 만들기 및 모둠 토론	
학번:	이름:

교사 Tip 6차시 활동을 두 시간에 걸쳐 모둠 토론으로 진행하고 7차시 활동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Tip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3가지씩 만들어 보고 직접 답도 적어 보게 합니다. 이후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으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합니다. 스티커를 미리 배부하고 답을 잘 맞히면 짝의 활동지에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개인별이 아니라 팀별로 획득한 스티커 개수로 보상을 하면 경쟁이 아니라 협력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을 알려 주는 것은 절대 금지하되, 친구가 답을 맞힐 수 있도록 문제 낸 사람이 최대한 힌트를 주는 것은 허용합니다.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 모둠원이 낸 질문 가운데 ‘최고의 질문’을 하나씩 뽑도록 합니다. 최고의 질문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 주는 질문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공지하면 학생들이 더 좋은 질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내가 만든 질문	내가 생각하는 답	친구가 말한 답	문제를 맞힌 친구 이름	스티커

8~9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조보, 백성을 깨우다》
읽기 후 활동: 한 뼉 더! 생각 넓히기	
학번:	이름:

1. 결의 아버지 이필선은 ‘글에는 힘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힘은 사람을 죽이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글의 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쓰세요.

교사 Tip (가)와 (나)가 각각 글이 가진 어떤 힘을 보여 주는 사례인지 먼저 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글의 힘을 실감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것을 예로 들어 글의 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도록 지도해 주세요.

<p>(가)</p> <p>가수 설리에 이어 구하라까지 연예인들이 잇달아 세상을 떠나면서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이 평소 악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세상을 등진 데는 악플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 중견 남자 배우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불특정 다수가 매일 내가 싫다며 욕을 하는데 그걸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며 “악플이 하나만 달려도 신경이 쓰이는 법”이라며 악플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중략)</p> <p>2000년 이후부터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연예인은 약 40명에 이른다. 과거 생활고 등의 이유가 많았다면 인터넷 문화가 활발해진 이후엔 악플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후략)</p> <p>출처: 한겨레</p> <p>(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457.html)</p>	<p>(나)</p> <p>1월 6일 래퍼 씬디(사이먼 도미닉)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통받고 상처 입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더해주세요”라는 글을 적었다.</p> <p>이와 함께 씬디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측에 5천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공개했다. (중략)</p> <p>이 가운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한 누리꾼이 씬디의 행동을 ‘보여주기 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 (중략)</p> <p>이에 대해 씬디는 “이렇게 티를 내야지 사람들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덩달아 착하고 좋은 일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다. 내 스토리를 좀 보시길”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씬디의 기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다수의 누리꾼들이 어린이 재단 측에 후원을 이어갔다. (후략)</p> <p>출처: 뉴스엔</p> <p>(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01070753362110)</p>
---	---

2. 이 작품에서 ‘글을 배우다’는 것은 공부를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p>(가) 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집안 살림에 텃밭 가꾸고 식구들 챙기느라 종일 동분서주 애를 쓴다.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된다. 그런 어머니 세상에선 글이 그다지 쓸모가 없는 모양이다. 어머니는 정말 글을 더 배우고 싶지 않았을까? 아버지 말대로 배우면 그만큼 더 보이고 알게 되니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p> <p>곁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늘고, 호기심이 늘수록 하고 싶은 일도 생겨났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p>	<p>(나) “그런데 너 공부 안 하고 왜 나왔어? 아직 실때 안 된 거 같은데?”</p> <p>“에이, 정말 힘들단 말이야. 글자가 벌레로 보여.”</p> <p>곁은 눈에 잔뜩 힘을 주고는 담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담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p> <p>“진짜 죽겠어……. 벌레로 변신한 글자들이 다 어디로 가 버렸으면 좋겠어.”(중략)</p> <p>“담이 너, 만약 앞을 볼 수 없다면 어떨 거 같아?”</p> <p>“눈이 안 보인다고? 엄청 답답하고 무서울 것 같아.”</p> <p>“글을 모르면 그렇게 돼.”</p> <p>“글을 모르는데 왜 답답하고 무서워? 난 공부 안 해도 되면 글 모르고 살아도 좋을 거 같은데.”</p> <p>“글을 모르면 저번에 네가 친구한테 거짓말해서 구슬 따먹으려고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럴 수도 있지. 넌 모르니까 그냥 당할 거고.”</p>
--	--

(1) (가)와 (나)에 따르면 결은 공부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2) 여러분은 결이처럼 공부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담이처럼 공부를 안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이 지지하는 쪽을 골라 이유를 쓰세요.

교사 Tip 양쪽 모두 조금씩 동의한다면 둘 다 이유를 쓰도록 해 주세요. 발표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 더 좋습니다.

결이 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공부는 꼭 해야지.
담이 처럼	공부는 해서 뭐 하나?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결은 담에게 ‘글을 모르면 당한다’고 말했지만, 이 작품에서 김 판서가 위조된 기사를 조보에 신자 글을 아는 사람들도 속을 수밖에 없었지요. 뉴스에 속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는 뉴스를 전하는 매체가 다양해진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요. 세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 우리가 접하는 매체(미디어)에 대해 알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요.

교사 Tip 매체(미디어)의 종류에 대해서는 1차시에 다루었어요. 다시 한번 언급해서 기억을 되살려 주세요.

3. 다음 기사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교사 Tip 우리는 TV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모두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디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이끌어 주세요.

검증 안 된 먹거리 방송에 자영업자들만 눈물...대왕카스테라 먹거리 X파일

지난 16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먹거리 X파일’은 대왕 카스테라의 제조법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다량의 식용유와 첨가물을 사용한다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부분의 업체를 일반화했다.

방송 이후 대왕 카스테라는 매출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매출 급감으로 폐업을 결정한 점주도 생겼다. (중략) 앞서 지난 2014년에는 벌꿀 아이스크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은 벌꿀 아이스크림에 양초의 주성분인 파라핀으로 만든 재료를 넣는다고 주장했다. 한 양봉업자는 인터뷰를 통해 ‘석유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관련 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기준을 통과한 시험 성적통지서를 공개하며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비판적인 시선 탓에 해당 점주들은 폐업을 결정했다. (후략)

출처: 글로벌 이코노믹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703291447586403d20c4c13e9_1/article.html?md=20170329162334_U)

(1) 위 기사는 어떤 사례를 보여 주고 있나요?

(2) 위 기사처럼 미디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10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조보, 백성을 깨우다》
읽기 후 활동: 학급 조보 만들기	
학번:	이름:

교사 Tip 그동안 학급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둠별로 정리해서 전하는 조보를 만들어 봅시다. 위에서 배운 내용을 잘 떠올리며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만을 담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해 양식을 자유롭게 변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급훈 : 00000000000000	0-0 학급 조보	제 0 호 0000년 0월 0일
---------------------	------------------	-----------------------------

발행인: 00중학교 편집: 000, 000, 000

우리반 소식 1모듬	우리반 소식 2모듬
	우리반 소식 3모듬
우리반 소식 4모듬	우리반 소식 5모듬